

처음 감사를 이어가게 하소서

■ 본문

시 34:1-6

■ 시작 찬송가

211, 587, 590장
(통 346, 306, 309장)

■ 헌금 찬송가

94, 429, 589장
(통 102, 489, 308장)

▶ 감사

1. 감사 드릴 대상

- 1)하나님
(시 50:14, 시 142:7,
단 2:23, 고후 9:11)
- 2)예수님
(딤후 1:12)

2. 감사의 이유

- 1)권능으로 통치하심으로
(계 11:17)
- 2)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함으로
(살전 2:13)
- 3)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롬 6:17-18)
- 4)항상 승리하게 하심으로
(고후 2:14)
- 5)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단 2:23)
- 6)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시 66:20, 118:5)
- 7)직분을 맡기심으로
(딤후 1:12)
- 8)내 편이시기 때문
(시 118:6-7)

시편에는 감사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 34편 말씀을 통하여 올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시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표제를 통해 시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통해 제사에 드리는 떡을 얻어먹고, 칼을 얻은 다음,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가다가 아기스라는 성읍에 들어갑니다. 아기스가 어떤 족속이나 하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이방 족속입니다. 이 성읍에서 아기스 왕을 만나는데 그는 다윗을 맞아줍니다. 그 이유는 사울과 전쟁 중에 있는 아기스 왕이 사울의 적인 다윗을 자기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아기스 왕은 처음 다윗을 단순히 사울과 싸우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들을 통해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알게 되었고, 다윗이 보통의 인물이 아닌,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삼상 21:11** **쫓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으로
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 왕과 신하들과의 대화를 알게 된 다윗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체 하게 됩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내쫓게 되고, 이로써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삼상 21:15 **내게 마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
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과 같이 미친 척 해야 살 수 있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우리는 감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속상한 일 하나만 생겨도 감사가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도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사시’로 알려진 시편 34편에는 우리가 감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자세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송축’입니다.

1절 말씀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항상은 “at all times”입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송축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시 34: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에서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r'B)’이고, ‘찬양하다’라는 말은 ‘테힐라(hL;hiT)’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바라크(&r'B)’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bless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축복하라’입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바라크’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축복은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직접 안아주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반대로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나쁜 점만 이야기 하는 것’,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한 것처럼 나쁘게 부풀려 이야기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감사의 자리에 나와야 하며,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겸손’입니다.

2절 말씀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을 떠난 다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곤고한 자들도 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시 34:2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곤고한 자’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흠정역(KJV)에서 ‘겸손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 예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 환난과 고난을 당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겸손함으로 다시 찾고, 울부짖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시 34:4-6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한, 후반부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물질을 많이 낸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 34:18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 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건강이 당연하고, 내게 가족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은 영어로 “Take for granted”입니다.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고, 또한, 교만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처음 감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처음 소개되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의 말씀도 하였고, 책망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성장과 회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겨자씨가 뿌려지면 그 겨자씨는 열매 맺도록 성장하고,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장과 회복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복된 신앙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계 2:4-5 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그림들은 아벨과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초대교회의 감사의 예배를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도착해서 번창하고, 잘 살게 되어 추수감사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102명 중 44명이 죽었고, 인디언들이 전해준 옥수수를 심고 겨우 수확한 상황이었지만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국경일이 된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1863년은 미국이 전쟁 중이었고,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사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픔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기 위해 추수감사절이 국경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이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3. 감사 드리는 방법

- 1)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롬 1:8, 골 3:17)
- 2)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엡 5:20)
- 3)개인의 기도를 통해 (단 6:10, 빌 4:6)
- 4)공적 경배로 (시 35:18)
- 5)시(詩)로 (시 95:2)
- 6)감사제로 (레 7:12-13, 15, 시 107:22, 116:17)
- 7)찬송으로 (삼하 22:50, 시 30:4)

오늘의 한마디

처음 감사를 이어가는 성도 됩시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입대자,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